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1996년도 표어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생활지침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회갱신을 위한 뜨거운 열기

2일,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강단이 새로워져야 하며, 강단이 새로워지려면 목회자가 새로워져야 한다."

제 1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2일 강남 YMCA대강당에서 시작됐다.

교과를 초월한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교시 이종윤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 세미나는 11월 4일까지 10주간 이어지게 된다.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서울교회부설 한국교

회갱신연구원 주최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1992년 개원하여 올 하반기로 10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도 여느 학기와 마찬가지로 강남 YMCA대강당은 가르치기에 앞서 배우려고 모인 목회자들의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목회자신학세미나에는 매학기에 7백명 가량의 목회자가 등록하여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자기를 갱신하

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물론 전라도와 경상도 등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장로교 목회자(72.7%)뿐 아니라 감리교(6.0%), 성결교(4.6%), 침례교(4.8%), 하나님의 성회(4.3%) 등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이 교과를 초월하여 참석하고 있어 한국교회 교단의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협력할 때 진정한 교회연합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홉 학기를 지나오는 동안 연인원 6천 4백여명이 등록하였다.

목회자신학세미나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에게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 454명이 활동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는 한국교회의 일치와 협력, 갱신과 성장을 위한 노력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참가한 목회자들은 세미나의 모든 프로그램이 1백여 명의 봉사자들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성득 목사 청빙

3·4교구, 초등부 지도



이성득 목사가 새 교역자로 청빙되었다.

이 목사는 1962년 부산에서 출생, 동아대학교 영문학과와 동대학원 영문학과(M. A.),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M. Div.)을 졸업하였다.

1993년 부산 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부산 거성교회 부목사로 시무하였다.

가족으로는 최순옥 사모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3대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집안 출신이다.

이 목사는 9월 16일 부임하여 3·4교구와 초등부를 지도하게 된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비전2000 운동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시기



1996. 10. 6. ~ 11. 24.

우리 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고, 기도를 시작한 지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교회창립예배를 드린 바 있다. 그 후에도 해마다 교회창립기념일 50일 전이 되면 '비전 2000 운동'을 선포하고 기도와 전도운동을 전개해 왔다.

올해도 다음 달 6일(주일)에 발대식을 갖고 교회설립일인 11월 24일까지 50일간 전도와 기도운동을 펴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비전2000 운동'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할 전도대상자(태신자)의 목록을 정하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창세기
강해



내게로 가까이 오라

(창세기 45장 4-13절)

이종운 목사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 주었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 자기를 계시한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되었고(5, 7, 8, 9절) '오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형들을 향한 초청(4절)과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초청(9절), 그리고 5년 기근이 더 올 것이라는 것(11절)입니다.

1. 내게로 오라

'오라' 이 말은 놀랍고 능력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죄인들과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오라' 이 말은 단순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복음과 연결될 때 놀라운 말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 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의 임재하심에서 쫓겨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팔 벌려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2. 와 보라(Come and See)

부활절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기름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부활에 와서 보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미명입니다. 시체를 찾던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28:6).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던 새벽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오라는 천사의 요청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같은 주님의 초청이 매순간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는 왜 무덤을 보아야 하며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무덤에 들어가 봄으로써 주님의 낮아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으나 그것을 버리시고 이땅에 오시어 무덤에까지 가서 누우셨습니다.

둘째, 죄의 무서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무덤에 눕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그곳에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울 곳이 바로 그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무덤 앞에 설 때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도 죽을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덤 너머에 생명세계가 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기 위해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근심, 두려움, 흠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일은 주일로 예배일이 바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무덤에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변화시켜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금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는 여인들처럼 천사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보다 더 귀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3. 누구나 오라

요셉은 형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이나 나로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

서"라고 했습니다(9절).

형들은 요셉의 초청에 응하여 요셉에게로 와서 그의 사랑을 확인했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초청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9절).

우리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곧 그 초청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라' 이 말은 참으로 위대한 복음입니다. 모든 세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불안, 공포, 공허감에서 떨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인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사1:18). 주님을 좇으라고 하였고 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마10:21, 마11:28). 어린양 잔치에 신부로서 초청하셨습니다(계19:17).

이제 그 초청에 응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특권을 누리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또한 부르실 것입니다.

✧ 순례자 킬링 ✧

"사랑으로 치유를"

사랑은 모든 덕성을 완성시킬 집합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용서도 이해도 화목도 친절과 부드러운 태도도 흘러 나오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참되 참는 이유를 알고 불평없이 기쁨으로 참는다. 억지로 참는 것은 버티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랑의 인내는 아니다. 사랑은 고통의 의미를 알게도 하고 만들게도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고통을 통해 지혜도 얻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도 없다. 사랑은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게 한다. 사랑이 없는 자는 나약해지고 사랑을 상실한 자는 포박한 자가 된다.

오늘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된 사랑을 회복시키고 정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사랑의 회복으로 가능하며 우리들 개인의 상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때에만 비로소 바른 가치와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0학기 개강 현장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열린 강남YMCA현장. 이 세미나는 대강당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배우의 열기와 봉사자들의 능숙한 지원으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박귀환 목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구(1·2교구)를 맡아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심방하면서 많은 교우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영동시장의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하나 제가 지도하고 있는 중등부학생들은 저의 큰 자랑입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열심히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습인터뷰 - 교역자실을 찾아

서울교회에 부임한 지 만 1년

감사...도전...아쉬움...바램

원 호 목사 (5·6교구, 대학부, 교육위원회)
이순환 목사 (9·10교구, 새가족부, 전도위원회)
김명현 목사 (11·12교구, 고등부, 목회자세미나)
박귀환 목사 (1·2교구, 중등부, 선교위원회)



▶원호 목사 대학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 항상 가슴 뿌듯합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최선의 길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지요. 목회자로서 천국시민양성의 초석이 될 리더 훈련에 좀더 많은 시간과 열심을 쏟아 붓는다면 그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터인데...부족한 저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명현 목사 서울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도전받은 것은 목회자는 영적인 충만함과 지적 성숙함을 겸비하여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조화를

이룬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근에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면서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순환 목사 성도들의 찬양하는 자세가 많이 성숙하였습니다. 4시 15분에 시작하는 '찬양의 시간'에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향상된 실력과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보다 다양하고 활기찬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예배당 저금통」 배포합니다” 가득 찬 저금통은 지난 주일 헌금

지난 주일 탁아·유치·유년·초등·고등부 학생들이 그동안 「예배당 저금통」에 모아온 건축헌금을 드렸다. 지난 6월 교회학교별로 배포된 저금통을 활용하여 3개월동안 모은 동전은 2,231,270원. 아직 헌금하지 않은 부서와 저금통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헌금한 것은 제외된 금액이다.

이후부터는 저금통이 차는대로 개인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헌금하면 되며, 「예배당 저금통」을 원하는 성도는 오늘 I, II, III부 예배 후 교회당 앞에서 가져갈 수 있다.



“퇴폐문화 확산 반대한다”

교회는 지난 주일 마이클잭슨의 한국공연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중·고등부 집회에서는 ‘마이클잭슨 내한공연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내일 한국장로교의 날 오늘은 장로교주일

한국장로교협의회에서는 올해 ‘한국장로교의 날’을 9월 9일(월)로 정하였다.

오늘은 장로교주일로 지키며 말씀을 통하여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을 재확인하고 계승해 나갈 것을 선포하고 각 교회별로 장로교의 날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연합예배는 8일(주일) 오후 7시 명성교회당에서 드린다.

한국장로교협의회는 개혁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여 회원총회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상호협의하며 한국장

로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창립된 장로교 총회의 협의체이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1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1회 총회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소망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화평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51개 노회의 1,500명의 총대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사명을 확인한다.

한국 장로회의 유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장로회는 1889년 선교사들에 의하여진 ‘연합공의회’와 1893년 ‘선교부공의회’에서 출발했다. ‘선교부공의회’는 1901년 한국인도 참여하면서 ‘장로회공의회’로 개칭되었다. 이 공회는 도단위로 하여 지방에 7개의 공의회 위원으로 되었는데 이를 ‘소회’라 불렀으며 이것이 ‘대리회’라는 명칭을 거쳐 총회가 조직될 때에는 ‘노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조직된 것은 1907년 9월 17일. 당시에는 노회가 하나뿐이었으므로 ‘독노회(獨老會)’라고도 하였다. 회원은 한국인 장로 36명 4선교부 선교사 33명, 찬성회원 9명 등 모두 78명이었다. 독노회는 ① 성서무오설 ② 하나님의 절대성 ③ 삼위일체론 ④ 하나님의 창조 ⑤ 인간 창조 ⑥ 인간의 타락 ⑦ 그리스도의 속죄 ⑧ 성령의 말씀 ⑨ 예정론 ⑩ 성례 ⑪ 신자의 본분 ⑫ 부활과 심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경(信經)을 제정하였다. 특히 독노회는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로부터 5년 뒤인 1912년 9월 1일에 평양에서 조직된다. 총대로는 한국인 목사 52명, 외국선교사 44명, 장로 125명이었고 언더우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날 중국 산둥에 선교사를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당시의 교세는 노회가 7개, 당회 134개, 미조직교회 1,920개, 교회건물 1,438채, 한국인 목사 69명, 외국목사 77명, 장로 225명, 조사 230명, 장립집사 16명, 세례교인 53,008명, 총신자수 127,228명이었다.

『한국기독교사특강』(이만열 지음)에서



1907년 9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1회 독노회

■ 목회자·교우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12일부터 열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1회 총회에 참여.
- * 박전선 집사(할렐루야찬양대 지휘)는 1일 단국대학교 음대학장으로 발령.
- * 신덕천 성도(2교구, 신정일·여열숙 집사 장남)는 5일 입대.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이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2. 우리교회 교역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3.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